



Hello! I am Sister Grace Hartzog and I am grateful to share with you. I was born in Swissvale, a small town east of Pittsburgh, Pennsylvania. My parents, Julia and Leo, were hard-working and they sacrificed much so my sister and I could go to Saint Anselm Elementary and Sacred Heart High Schools where the Sisters of Charity taught.



My sister, Eleanor who was five years older than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and received the name, Sister Julia Ann. She taught children with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ies and then taught Special Education courses at Duquesne University until her sudden death in 2001.



In my 62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I am grateful for the many opportunities to teach in our schools in Pittsburgh, Tucson, Arizona, Greensburg, and Abbeyville, Louisiana. Most of my years were at Seton Hill and I taught Child Psychology and directed the Child Development Center and later courses in the Education Department, where I had the opportunity to teach and supervise student teachers.



My love for young children began when my parents took care of foster children born at Roselia Foundling Maternity Hospital, staffed by the Sisters of Charity. Little did I know, that years later when I was in leadership, I would be privileged to work with Sister Mary Halloran and research records when mothers, adopted children, and families searched for information for their birth mothers or children born at Roselia!

The National Catholic Center for Holocaust Education at Seton Hill University has a cooperative program of study at Yad Vashem in Israel and I had a memorable experience of study.



I loved visiting and getting to know our sisters in Korea and Ecuador and have many wonderful memories that help me to be grateful for Elizabeth Seton's message, "Keep well to the grace



of the moment . . . do your best and leave the rest to God."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하트조그 Grace Hartzog 수녀입니다. 수녀님들과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 스위스베일 Swissvale 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어머니 줄리 Julia, 아버지 Leo)께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많은 희생을 하셨지요. 그 덕분에 저희 자매는 사랑의 씨튼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성안셀름 Saint Anselm 초등학교와 성심 Sacred Heart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다섯 살 위 언니 엘리노어 Eleanor는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줄리아 앤 Julia Ann 수녀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언니는 장애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이후에 듀케인 대학교 Duquesne University에서 특수교육을 가르치다가 200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62년 동안 살아오면서 피츠버그, 애리조나주 투산, 그린스버그, 루이지애나주 애비빌에 있는 여러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수도생활 대부분은 씨튼힐 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아동 심리학을 가르치고, 씨튼힐의 어린이집인 아동발달센터 Child Development Center를 담당했으며, 교육학 과목을 맡아 학생 교사들을 가르치고 지도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자라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씨튼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로셀리아 영아원과 산부인과 병원 Roselia Foundling Maternity Hospital 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탁받아



돌볼 때부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녀회 리더십으로 일하면서, 메리 헬로런 Mary Halloran 수녀님과 함께 로셀리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는 입양된 아이들, 어머니, 가족들을 위해 기록을 조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또, 씨튼힐 대학교 가톨릭 홀로코스트 교육센터 National Catholic Center for Holocaust Education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국립 추모 기념관 야드 바셈 Yad Vashem의 협력 연구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면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에 있는 우리 수녀님들을 방문하고 알아 가면서 많은 좋은 추억을 갖게 되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 추억으로 "순간의 은총을 잘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십시오."라는 성녀 엘리사벳 씨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